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이 민 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Gender Images in Men's Fashion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Min Su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2. 2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have formed gender images in men's fashion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r this purpose, the images of gender in fashion were analyzed and historical studies about gender images in men's fashion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days were done. Historically, images of gender expressed in fashion were masculine image, feminine image, androgynous image and genderless image. Among those images, masculine image and androgynous image have been the gender images in men's fashion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 psychoanalytic view point, the factors which have formed the gender images are related with sexual pleasure. Libido for looking, narcissism and exhibitionism have produced masculine image and androgynous image in men's fashion.

In socioeconomic view point, power structure between the sexes have built the gender images in fashion. Masculine image and androgynous image came into being in men's fashion for the purpose of displaying power or expressing opposition to power structure between the sexes.

In aesthetic view point, the aesthetic sense of each age about sex have constructed the gender images. Modernism had influence on building masculine image, and post-modernism have formed androgynous image in men's fashion.

Key words: gender images in men's fashion, sexual pleasur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sexes, aesthetic sense about sex;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성적 만족, 성 간의 권력 구조, 성에 대한 미의식

I. 서 론

의복은 성적 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보여주는 데

있어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 인간의 신

체적 성은 의복이라는 매체를 통해 위장이 가능하

며 따라서 패션이 창출하는 성적 이미지의 끝없는

변화가 실현된다. 패션은 복식의 성적 코드를 이용

해 전통적인 성 개념을 표현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펼쳐 왔다. 바로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19세기 복식에서 전통적인 성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은 이후부터 복식의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복식사를 통해 볼 때 여성의 패션은 흥미롭게 발전하였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 역사를 살펴보면 남성 또한 여성 못지 않은 과장되고 야한 모습으로 패션에 참여하였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 역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표현적이었으며 여성의 패션처럼 유동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었다²⁾. 사실 남성은 패션을 버린 것이 전혀 아니며, 단순히 다른 구조에 참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드라마로 인식하여야 한다. 남성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서는 여성 의복을 이해하기 힘들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패션의 현대적 원형이 정립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를 형성해온 요인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복식의 성적 코드의 조합으로서 패션에서의 성적 이미지를 정의하기 위해 우선 복식의 성적 코드들을 정리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패션의 성적 이미지를 정의하고 그 유형들을 파악한다.
2.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3.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를 형성해온 요인들을 정신분석학적, 사회경제학적, 미학적 시각 등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II. 패션에 표현되는 성적 이미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들을 이루고, 이 관념들은 복

식에서의 성적 코드를 형성하였으며, 이 성적 코드들의 조합은 패션에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무성적 이미지 등의 개념을 출현시켰다.

1. 패션에 표현되는 성적 코드

의복은 개인의 성(gender)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면서 개인의 정체감을 만들어 준다. 그러한 정의의 연속적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 개념과 일치한 복식이나 혹은 불일치한 복식을 공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착용자의 성(gender)에 대한 관념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현재의 성도착증에 쓸리는 대중의 관심은 많은 경우에 남녀가 같은 복식을 착용함에도,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녀 의복에서의 상징적인 구분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혜정⁴⁾과 이민선⁵⁾은 Northrup(1936)⁶⁾, Morton(1968)⁷⁾, Hastie와 Widger(1976)⁸⁾, Davis(1980)⁹⁾, 안유인¹⁰⁾ 등에 의해 제시된 음양 개념에 따른 복식 디자인 요소를 참조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적, 남성적이라고 기록된 복식 디자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조형적 측면에서 정의 내리기 위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형식적 요소로 형, 색채, 재질, 무늬, 기타로 분류하여 그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디자인 요소들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복식에서의 성적 코드로서 개념화하고 이 성적 코드들의 조합이 복식에서 성적 이미지(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무성적 이미지)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서의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에 대한 형식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 색채, 재질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조형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사물의 형태에는 윤곽선, 내부형, 구조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복식에서 남성적 윤곽선은 남성의 신체적 특징 즉,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이며, 여성적 윤곽선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 즉,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형이다. 남성적 내부형은 상의의 라인이 직선적이며, 하의인 바지는 신체에 거

의 맞게 제작되어 강인한 두 다리를 인식하게 한다. 여성적 내부형은 상의의 라인이 곡선적이며 하의인 스커트는 하반신의 두 다리가 분리된 인체 구조를 인식하지 않는 형이다. 또한 남성적, 여성적 구조형은 구조적인 선을 이용한 입체형이 특징적이다. 즉 남성복식은 어깨나 가슴을 강조하는 Y형의 입체이며 여성복식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형의 입체이다.

남성적 색채는 단순하고 세련된 무채색, 중간에서 어두운 채도의 색이며, 여성적 색채는 화려한 유채색, 중간에서 밝은 채도의 색이다.

남성적 재질은 무겁고, 거칠고, 양감있고 딱딱한 직물이고, 여성적 재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고, 비치는 직물이다.

기타 남성적 코드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짧은 머리, 수염 등이 있으며, 기타 여성적 코드로는 긴 머리, 화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형태를 중심으로 한 복식에서의 성적 코드들은 복식의 발생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19세기 이후에 더욱 확고히 정립되었다.

2. 패션에 표현되는 성적 이미지들의 유형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류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의를 둘러보아도 이런 식의 분류는 매우 흔한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분류가 인위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음양설에서도 음과 양이 완전히 분리되어 한 대상에는 양 혹은 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도 병행적 공존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또한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남성적 여성적 모델은 확고히 성립되어 있으나 이 모델들은 실제의 성별 및 사회적 범주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 사이에서 도처에서 전염과 확산이 보인다고 한다¹²⁾. 또한 미학적 측면에서 패션의 성립은 성적인 감각에서 유출된 것으로 시대에 따른 이상미는 남성성, 여성성 또는 양성성을 표현이다.

Bem은 심리학 분야에서 양성의 개념을 연구하게

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녀는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남성적, 그리고 동시에 여성적 특질을 함께 갖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양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전에 사용된 단일 척도를 폐기하고 두가지 다른 척도를 만들었다¹³⁾. 그것은 여성성에 높은 점수를 낸 사람이 남성성에도 높은 점수를 낼 수 있고, 보통일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또 남성성에 높은 점수를 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임을 반영한 척도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질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양성적이라고 보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행동을 하는데 좀 더 중립적일 것이다¹⁴⁾.

따라서 패션에서 표현되는 성적 이미지에는 남성적 코드만을 사용한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코드만을 사용한 여성적 이미지,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가 혼용된 양성적 이미지,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가 모두 배제된 무성적 이미지가 존재한다.

III.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사적 고찰

1. 19세기 중반

19세기 이후 귀족정의 쇠퇴, 부르조아 등장, 시민운동, 청교도적 노동 윤리, 민주주의 발달과 더불어 성인 남자 복식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어 이전 시대의 남성 복식에서의 장식성은 사라지고, 겸소하고 허세 없는 복식이 남성을 지배하였다. 근대 디자인의 강하고 단순한 형태는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디자인에서 강요하는 완전무결함에 대한 열망은 로코코 취향이 퇴조한 이후 계몽운동과 관련지어 18세기 후반 서양에서 일어났다. 현재 너무나 보편적으로 익숙한 고전적인 남성 테일러드 수트는 원래 신고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에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명료성을 고전적 디자인에서 가장 단순한 시각적 주제로 제안하였던 시기인 약 1780년에서 1820년에 발명되었고¹⁵⁾ 1850년대 이후 그 원형이 정착되었다¹⁶⁾.

1860년대에는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사회의 대변혁이 일었고, 성과 계층의 구분이 중요 문제로 떠올랐다. 의복은 그 구분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적

접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부르조아 남성들은 어두운 색상의 수수한 복식을 착용하였고 이는 그들의 지위, 직업, 야심의 상징이었다¹⁷⁾. 남성은 패션을 단념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나 이는 남녀 성 차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 일부 젊은 이들 사이에는 화사한 랜디 취향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1875년 경에는 검정색이 일상용으로서도 적합하게 되었다. 테일러링 기술의 변화는 스타일보다 맞음새에 집중하게 하였다. 새로운 남성 패션은 장식, 색채, 과시보다는 재단과 몸에 꼭 맞게 함을 중시했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화장과 같은 여성적으로 멋부리는 것을 거부했으나, 몸에 꼭 붙는 바지가 주는 에로틱함과 같은 채색되지 않은 남성미를 추구했다¹⁸⁾.

1890년대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신사복에 기성복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¹⁹⁾ 매스 패션 성립 가능성이 열렸다.

2. 20세기 전반

1900년대는 신흥 부자들이 토지와 작위를 얻었고, 노동 계층 경제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한 사회에 어울리는 하이 패션²⁰⁾ 즉 뚱뚱하고 부유해 보이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²¹⁾. 그러나 1900년대 말엽에는 부풀려졌던 실루엣이 몸에 맞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²²⁾.

1910년대에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실용적인 진한 색과 단순한 테일러드 수트가 유행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이었다²³⁾.

1920년대에는 소년처럼 짧고 날씬한 스타일이 이 상화되어 어깨가 자연스러워진 날씬한 실루엣이 계속 유행하였다²⁴⁾.

1930년대에는 경제 공황으로 인해 패션에 보수적인 경향이 표현되어 성숙한 남성상이 유행하였다. 머리는 짧고 가리마를 타서 단정하게 벗은 형태였으며, 콧수염이 유행하였고 모자가 필수품이 되었다²⁵⁾. 1940년 초 5년간의 전쟁 후 민간 생활에 약간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남자들은 군대복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룩을 선호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국가경제가 심각했고 사실상 파산했으므로 통제는 계속됐고 더욱 강화되었다. 남성 수트는 편

안하게 재단되어 정장스러움은 감소했지만, 전쟁 이전 기본 개념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5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복의 자켓은 길어지고, 어깨의 패드는 작아졌고 바지는 좁아졌다. 모자 역시 대중성을 잃어갔다. 1950년대 후반에는 전후 성장한 젊은이들은 1950년대의 동질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우상을 새로운 세대의 영화 배우에게서 찾았다. 1950년대에의 스타의 반항적, 공격적, 반 보수적인 분위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이상화되었다. 또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남성의 이미지가 섹시하고 상업화된 매력적인 외모로 변화하였고, Elvis Presley와 같은 팝가수가 새로운 스타일의 선도자가 되었다²⁶⁾.

3. 20세기 후반

60년대에 들어 남자들의 패션에 대한 의식이 점차로 변화하였다. 남성들은 새로운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의복을 차려입었는데 이때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소년적인 스타일이었다²⁷⁾. 남성복식은 남성들이 전통적인 남성 복식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점점 화려해졌고 여성성이 유행되었다²⁸⁾. 긴머리와 헤어밴드 많아 헤어진 진과 단정치 못한 캐주얼한 외모의 히피(hippie) 의상 등은 점점 더 양성의 동등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에 적합해 보였다.

1970년대에는 성 역할 교환이 남녀 차별의 전환위기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David Bowie같은 록 스타들의 양성상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자가 머리를 삭발하는 것 같은 대담함은 처음 얼핏 보면 충격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스타일은 댄디즘(dandysm)의 새로운 형태와 거의 다름 없었다²⁹⁾. 또한 70년대 평크(punk)는 성과 관련된 외모를 결정짓는 단서들을 재조작했다. 1960년대에는 최소한 몇몇 젊은이들에 의해 전통적 남성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일반적인 남성들도 약간씩 과감해졌다. 남성들도 여성들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의복을 입게 되었다³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였고 스타일의 선택도 과감해졌다. 보습제와 립크로스, 그리고 때로는 파운데이션이 등을 사용했고³¹⁾ 이러한 남

성 미용제품의 사용은 70년대의 남성의 억센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고 세련되게 변모 시켰다.

1980년대에 있어 남성의 이미지는 흥미 있는 변화를 겪었다. 80년대의 초반기에는 몇몇 부분에서 환상적인 피코크룩(peacock look)이 선보였다. Boy George, Prince, Michael Jackson과 같은 팝스타들에 의해 진한 화장과 같은 양성성이 표현되었다. 1984년 *The Face*는 최초로 남성을 표지 모델로 선보였다. 남성들이 잡지 상에서 여성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³²⁾. 그러나 그 모습은 1950년대 초에 유행한 남성적인 신체로 돌아가서 남성적이고 무게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여성성 대신 남성성이 차지했으며, 광고에 까지 영향을 미쳐 1950년대 초의 남성적 이미지의 모델을 사용했다³³⁾.

1990년대에는 여러가지 남성의 정체성이 보여졌다. Crail³⁴⁾는 이를 강한 남성, 새로운 소년, 새로운 남성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강한 남성은 속옷으로 박서(boxer) 반바지를 입고 실용적이고, 디자이너 레벨(label)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새로운 소년은 Y자 형의 속옷을 입고 Versace나 Montana, Calvin klein과 같은 상표를 선호한다. 새로운 남성은 Romeo Gigli, Gap, Agnes B, Nicole Farhi의 옷을 선택하며, Paul Smith의 열대 무늬 박서 반바지와 속에 팬티를 착용하며 패션을 선도한다. 이처럼 남성의 정체성이 세분화된 결과로 남성 패션은 다양화되었고, 남성 패션 산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남성복 패션 사이클은 짧아졌으며 시즌마다 컬렉션이 정규화 되었고 다양한 남성의 정체성이 페셔널리티를 보여졌다. 그러나 지위와 성 차별을 유지하려는 규범은 여전히 존재하며, 상당한 비율의 남성과 여성은 지나친 장식과 남성의 몸이 보여지는 것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피코크(peacock)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⁵⁾.

IV.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서 성적 이미지를 형성해온 요인 분석

1. 정신분석학적 접근 - 성적 욕구의 발현

인간의 성적 욕구와 무의식에 대한 Freud의 연구

는 패션에 대한 보다 같은 심리 분석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인지 시켜주었다. Flügel³⁶⁾은 Freud³⁷⁾의 분석을 연장하여, 모자, 타이, 코트 칼라, 단추, 바지 등은 남근을 상징하며, 베일, 거들, 팔지, 보석 등은 여성 생식기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전체적 이미지가 성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양면성'이다. 즉,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수치심은 19세기 이후 복식에서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균간을 이루어왔다. 즉, 자기도취적이고 과시적인 여성복식과 과시욕이 억압된 어둡고 단순한 형태의 남성 복식이 각각 패션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1) 보고자 하는 성적 욕구(Libido for Looking)

Freud³⁸⁾는 성욕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는 '보고자 하는 욕구'로서, 상대의 성에게 있는 독특한 기관을 보려고 하는 욕망은 남녀 모두에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 인체는 성적 대상물로 전이됨에 따라 생식기에 한정된 성적 흥미는 몸 전체로 확산되었고, 19세기 이후 남성들은 그들의 '과시욕'이 억압되자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인 형태의 '관찰'로 특징지워지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수동적인 '보여지기 원하는' 본능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시기에 테일러드 수트는 남성의 계급이 무엇이건 간에, 남녀 복식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확증하고 승인해 주었다. 남성들은 그들의 자기도취적 그리고 노출증적인 욕망들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호화스럽고 현란한 귀족의 복식을 착용하기를 그만두었다³⁹⁾. 19세기 이후 남성들은 그들의 과시욕이 억압되자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인 형태의 관찰로 특징지워지게 되어 어두운 색상의 수수한 복식이 남성성의 특징을 이루었고,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본능 쪽으로 돌아서게 되어 깊게 파인 목선과 과도한 장식이 하나의 불거리로서 복식에서 여성성의 특징을 이루어 왔다.

2) 나르시시즘과 노출증 (Narcissism & Exhibitionism)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 대상처럼 다루어서 성적 쾌감을 품고 이를 바라보며, 어루만지며, 애무하여 마침내는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말이다⁴⁰⁾. Flügel⁴¹⁾은 여성의 나르시시즘은 그들의 복식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장식적이고 유별난 여성복은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더욱 부추긴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여성 복식과 남성 복식의 차이를 묘사하였다. 적어도 최근 몇 세기 동안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장식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성이 자아도취적임을 강조하기는 하나, 남성 역시 자아도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⁴²⁾. 또한 나르시시즘은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한 허영 이상의 의미를 갖으며, 패션 이미지를 보는 것은 자아정체감의 확립 과정⁴³⁾으로서 남녀 모두에게 가능한 동시에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남성 복식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표현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점점 화려해졌다. 그들은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을 통해 의복에



[그림 1] 남성의 나르시시즘과 노출증

The Face, oct,1998, p.1

있어서 남성의 자기도취를 금해온 순종적 문화에서 그들은 그들의 자기도취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 듯 했고 이에 따라 양성적 이미지가 유행되었다⁴⁴⁾.

1980년대부터 남성들은 성적 대상이 되었고, 이상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광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⁴⁵⁾. 1980년대 이후의 광고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생각과 남성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공략하였고, 동시에 성에 관한 새로운 코드를 확립하여 남성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는 힘을 확립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을 보여 주던 이전의 광고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광고들은 남성의 몸을 보여 주고 있다⁴⁶⁾.

또한 1998년 Polo Jean 광고⁴⁷⁾에서는 여성의 보고자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흔히 예쁘고 어린 남자의 이미지 즉 양성적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를 바라보는 젊은 여자를 함께 배치시켰다.

이와같이 20세기 이후 대중 앞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 또한 이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여 남성 패션에서 남성성 및 양성성이 표현되고 있다.

2. 사회 경제학적 접근 - 성 간의 권력 구조

Baudrillard⁴⁸⁾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구조적인 대립을 사회적 우월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다. 즉 남성성은 투기적이며 결투와 같은 행위이며, 명예 또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욕적이고 귀족적인 미덕이다. 여성성에 영속되는 것은 반대로 과생적, 대리적 가치(Veblen에 의하면 대리적 지위, 대리적 소비)이다. 여성성은 정신분석학 견지에서 자기 도취적인 것으로 설명되지만, 생산활동의 영역에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진다. 즉 재산을 사용하는 여성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위세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 기능은 여성들의 귀족적 또는 부르조아적 무위도식으로부터 과생되는 것인데, 19세기 이전 여자들은 그러한 무위도식으로 자기 주인의 권위를 입증하였다. 복식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의복이 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고딕

시대 아래로 꾸준히 발견되며 특히 산업 혁명 이후 근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의복은 여성의 지위가 열등하고, 행동 반경이 주로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시대나 문화권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으며, 여성 해방 및 자유가 신장된 시대에는 여성 복식이 좀 더 남성복의 특징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거나⁴⁹⁾ 남성복식에 있어서 여성적 코드가 도입된다.

남성들은 그들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의 표현 또는 이로 인한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서 그들의 패션에 남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 경제학적 관점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의 역사는 남성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남성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서의 양성적 이미지 간의 진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

1) 권력 구조의 강화

19세기 이후 남녀 의복 분리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⁵⁰⁾. 이 시기에 일어난 남녀 의복 분리에 대해서 복식사가, 여성학자, 유행이론가들의 해석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나 기본적으로 귀족정의 쇠퇴, 부르조아 등장, 시민운동으로 인한 유럽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테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청교도적 노동 윤리,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성인 남자의 의복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가시적 매개체가 되었다⁵¹⁾. 산업화된 유럽에서 남성들은 의식적으로 과거 귀족적인 의복 기준과 사치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다. 그들은 새로운 산업화의 구조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입었다. 그들의 의복은 단순해지고 검소해지며 어두운 색조를 띠게 되었다⁵²⁾.

1980년대에는 여피(Yuppie)라고 칭해졌던 전문가들이 근면성과 책임감의 상징으로 등장하였다. 성공하기 위한 옷차림과 인상을 주기 위한 옷차림이 이 여피들의 좌우명이었다. 직업상 높은 지위에 있는 여피족 남성의 상징은 파워 수트(power suit)였다. 파워 수트의 넓은 어깨는 중요한 디테일로서 패드로 강조되었다. 미국에서는 Calvin Klein과 Ralph Lauren 그리고 유럽에서는 Georgio Armani가 여피

시장을 독점했다⁵³⁾. 젊은이들에게 조차 새로운 유행으로 인식된 보수적인 형태의 수트와 넥타이의 여피 의복이 유행되기 시작하자 이 새로운 유행은 남성의 패션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남성 복식으로의 회귀로 보였다.



[그림 2] 권력 구조의 강화—비지니스수트
Fashion for Men, p.149

2) 저항적 복식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을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서 정의 내려진 성 정체감에 대해 집단 적인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복식을 채택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댄디(Dandy), 모즈(Mods), 평크(Punk) 등의 하위문화와 팝가수들과 배우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가 그것이다. 19세기 이래 남성들은 한 시기에 보다 적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따라서 동조를 강요 당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패션을 거부하거나 혹은 주된 흐름에 동조해야 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의복이 집단과 개인적 불일치를 모두 상징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인물이 바로 댄디(dandy)였다⁵⁴⁾. 19세기 댄디라고 불리는 하위 집단은 이전의 혈통중심주의를 비난하고⁵⁵⁾ 새로운 남성상을 선보였다.

그들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둉글게 하고, 가슴을 볼록하게 하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성 정체감에 대한 저항적 표현에서 비롯된 댄디즘(dandysm)은 트

렌드(trend)를 정착시키는 사람과 유행을 따르는 집단과의 관계를 세우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새로운 의복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럽 남성 패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덴디들은 피코크(peacock)의 자취와 평범한 남자의 규칙을 혼합하여 적용하였다⁵⁶⁾. 모즈는 1950년대 말 영국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청소년 하위 문화 집단으로 그들의 남녀 성의 관념에 대한 도전이 외모에서 성의 혼돈을 초래했다. 1970년대 등장한 평크는 성과 관련된 외모를 결정짓는 단서를 빙해했다. 1970년대 록 뮤직의 맥락도 평크 스타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⁵⁷⁾ 남성이 남성상을 재고하게 하였고, 그 산물인 남성 해방 운동은 새롭고 다양한 남성상을 낳았다. 이에따라 많은 남성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인 패션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성들은 더 이상 근대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회적 힘의 유일한 대표자가 아니며, 많은 남성들은 일과 가사를 분담하고, 학생이거나 실업자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 열등 의식을 느끼는 것을 극복해 가고 있다. 1980년대 남성복에서의 가장 큰 움직임은 실직자인 수백만명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다⁵⁸⁾. 실직은 싸고 실용적이며 잘 헤어지지 않는 평범한 남성들의 차림을 만들어 냈다. 찢어진 청바지는 The Face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⁵⁹⁾. 또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이은 3년간, 하위 계층의 젊은이들은 뜨거운 날씨에서 입는 미니멀(minimal)한 쇼츠와 형광색의 티셔츠, 나염한 스카프와 농구화를 착용함으로써 상표에 기초한 엘리트주의에 저항하였다⁶⁰⁾.

남성복은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으며, 남성들이 캐주얼한 옷에 대한 수용이 늘어감에 따라 일하는 옷에 변화를 가져와서 정장 수트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전파의 과정은 이전에는 사회적 엘리트와는 관계가 없었던 옷들이 남성의 의복 코드를 바꾸도록 허용하였다.



[그림 3] 반항적 복식—평크

복식사회심리학, p.314.

3. 미학적 접근 - 성적인 미와 이상적 자아

남성과 여성이 보는 방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고정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중세에 그려진 아담과 이브를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아담과 이브에 비교한다면 그들의 신체적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⁶¹⁾. 이것은 변함없이 지속된 인체의 형태이지만, 각 시대마다 인체에 대한 다른 미의식을 키워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고정된 인간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시대에 따라 당대인이 익숙한 혹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착용한 신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⁶²⁾.

근대 사회에서는 옷은 인체의 자연적인 미와 조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옷은 두 성(sex)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다⁶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체는 성(sex)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정보는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복식에 의해서 가공되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gender)에 대한 표시는 신체에서 복식으로 대치되게 되는데, 이때 패션에서 가공적 의미가 강할 때 복식에서 성(gender)은 모호해 진다⁶⁴⁾. 즉, 복식은 남성복을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로만 표현하고, 여성복을 복식에서의 여성적 이미지로만 표현하여, 남성미와 여성미를 확연하게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복식의 조작에 의해 신체를 은폐하거나 가공함으로써 유사

해진 남성과 여성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은 시대적인 미와 결부되어 각 시대의 이상적인 남성미와 이상적인 여성미를 확립하여 왔고, 이러한 이상미는 당대의 패션에 표현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패션은 완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보로서 존재하여 왔다. 즉, 패션은 남성적인 혹은 여성적인 변화에 따른 흐름으로서, 시대적 미감이 남성과 여성의 변화에 대한 정의를 요함에 따라 끊임없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재정의하여 온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패션에서 성적 이미지를 이루어온 시대적 미감은 모더니즘(Modernism)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모더니즘(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근대 디자인의 강하고 단순한 형태는 자연스러운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미론에서는 고대의 원형에 기초를 둔 새로운 단순한 형태로 창조된 건물의 적절한 특성들을 묘사하기 위해 '남성적인'과 '근육질의'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부르조아 시대에는 남성은 여성이 자랑스럽고 다소곳하게 우러러보는 광포한 정복자로서 힘에 넘치는 허벅다리와 종아리를 가진 남성 근육을 찬미했다⁵⁵. 남성의 의복, 즉 바지는 긴 사지와 운동 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남성다운 힘과 활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여성들은, 한때는 남녀 모두에게 흔했던 오래된 장식의 관습을 따라온지 오래였으며 그것을 아직도 그들이 지켜야할 특권으로, 어쩌면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여 그들의 의복을 남성의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시기에 패션에서 급진적이고 근대적인 일보를 모험적으로 뗀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근대 세계의 패션은 두 개의 독립된 경로를 택하여 몇 백년의 패션 역사에서 처음으로 두 성에서 뚜렷이 다른 길을 따라 움직였고, 이는 전체 근대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었다⁵⁷.

새로운 남성 패션은 장식, 색채, 과시보다는 재단과 몸에 꼭 맞게함을 중시했다. 그들은 화장과 여성적으로 멋부리기를 거부했으나, 몸에 꼭 붙는 바지

가 주는 에로틱함과 같은 채색되지 않은 남성미를 추구했다⁵⁸.

20세기 초 남성들의 근대화는 이미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들에게 화장품과 복잡한 장식이 사라진지 오래였다. 대신 남성 패션은 남성 운동복, 작업복과 군인복 해군복에서 주로 영감을 받은 몇가지 흥미로운 진보와 함께 신고전주의 테일러 개념을 계속 수정하는 형태를 택하였다. 남성복은 디자인의 근대적 외관을 가지게되었고, 착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숨기게 되었다⁵⁹.

20세기 후반 패션의 주된 흐름에서 남성들이 지난 중요성은 근대적 남성성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커져가고 있었다.



[그림 4] 모더니즘—1920년대 남성 패션

In Fashion, p.145.

2) 포스트모더니즘(20세기 후반)

한 사회내의 문화적 범주들은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양면 가치는 남성성과 여성성, 젊음과 고령, 지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상정을 뒤섞어 병행함에 따라 패션 변화에 창조적인 연료를 공급한다. 그러한 병행은 완전히 새롭고 모호한 외관—범주에 꼭 들어맞지 않는 외관을 창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단일한 룩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룩들을 동시에 수용하는데 이



[그림 5] 포스트모더니즘 -보이 조지
The Face, October 1998, p.168.

는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이 가진 양면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표출함으로써 복식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는 최소한 몇몇 젊은이들에 의해 전통적 남성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이루어졌으나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반적인 남성들도 과감하게 양성성을 표현하였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였고 스타일의 선택도 과감해졌으며 각종 미용 제품의 사용으로 남성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게 변모시켰다. 80년대에 여성은 사라지고 소녀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또한 남성에게도 이상미가 젊음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Levi's tm 501 진의 광고에서는 예쁘고 어린 남자의 성적 힘을 포착했다²⁰⁾. 1980년대에 있어 남성의 이미지는 흥미 있는 변화를 겪었다. 80년대의 초반기에는 몇몇 부분에서 환상적인 피코크룩(peacock look)이 선보였다. Boy George, Prince, Michael Jackson과 같은 팝스타들에 의해 진한 화장과 같은 양성성이 표현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 표현되는 성적 이미지들을 복식의 성적 코드의 조합으로 정의하여 성적 이미지들의 유형을 분리하였으며, 복식에서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확립된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았고,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패션에서 성적 이미지들을 형성해 온 요인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복식에서 성과 관련된 코드는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로 구분되며, 이 성적 코드들의 조합으로 복식에서 여러 가지 성적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복식에서 표현되는 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무성적 이미지 등이며, 19세기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였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상의 형성 요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성적 욕구, 나르시시즘과 노출증에 의해 남성적인 패션, 또는 패션에서 양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남성에게 나르시시즘이 노출증이 억제된 시기에는 남성적 이미지가 유행하게 되고, 여성에게 보고자 하는 성욕이 공적으로 허용된 시기에는 남성 패션에 나르시시즘이나 노출증이 표현되어 보다 장식적인 양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성 간의 권력 구조는 남성 패션에 성적 이상을 형성하여 왔고, 성간의 권력 구조에 대한 과시나 저항의 표시로서 패션에서 남성적 이미지 또는 양성적 이미지가 표현된다. 즉, 남성이 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 남성의 지배적인 패션에서는 남성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이러한 지배적 패션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불일치를 상징하는 패션에서는 양성적 이미지가 표현된다.

미학적 견지에서 남성 패션에 표현된 이상적인 성적 이미지는 시대별로 변화를 보여 왔으며, 이상적인 성적 이미지들은 각 시대의 성에 대한 미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19세기 중반 이후 모더니즘적 디자인의 강하고 단순한 형태는 남성적인 것으로 인

식되었고, 남성 패션에서는 남성성이 강조되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적 디자인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한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에서도 성이 가진 양면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표출함으로써 남성 패션에서 양성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참 고 문 헌

- 1) Juliet Ash &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 (London: Pandora Press, 1992), p. 35.
- 2) Anne Hollander, *Sex and Suit* (N. Y.: Alfred A.Knopf, 1994), p. 22.
- 3) Ibid., p. 7.
- 4) 전혜정,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3년.
- 5)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년, 5-10.
- 6) B. Northrup,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 *Art Education Today II* (1936), 94-104.
- 7) G. M. Morton, *The Art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3rd ed; N. Y.: John Willey & Sons, 1968).
- 8) R. T. Hastie & R.F.Widger, “New Insight into Meaning of Masculinity & Femininity in Dress”, ATPTC combined proceedings(Georgia: Georgian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Univ. of Georgia, 1976).
- 9) M. N. Davis, *Visual Design in Dress*(N. Y.: Ptnrtice-Hall, Inc., 1980).
- 10) 안유인,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년, p. 11.
- 11) Kay Deaux, *The Behavior of Women and Men* (Monterery,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6), 이혜성 옮김, 남녀 행동 연구(서울: 이화문고, 1986), p. 205.
- 12) J.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1), p. 133.
- 13) Sandra L.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1974), 155-162.
- 14) Kay Deaux, 이혜성 옮김, Op. cit., p. 213.
- 15) Anne Hollander, Op. cit., p. 5.
- 16) 장은정, “서양 남성복의 유형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년, p. 3.
- 17) Elizabeth Wilson & Lou Taylor, *T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 BBC Books, 1989), p. 14.
- 18) Elizabeth wilson, *Andorned in Dreams* (London: Virago Press, 1985), p. 33.
- 19) Elizabeth Wilson & Lou Taylor, Op. cit., p. 49.
- 20) Ibid., p. 43.
- 21) 장은정, Op. cit., p. 29.
- 22) O.E.Schoeffler & William Gale, *Enqire's encyclopedia of 20th century men's fashion*, (N.Y.:Mcgraw-Hill Book Company, 1973), p. 4.
- 23) 장은정, Op. cit., p. 31.
- 24) O. E. Schoeffler William Gale, Op. cit., p. 33.
- 25)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London: Guinness Publishing, 1992), p. 48.
- 26) Ibid., p. 116.
- 27) Prudence Glynn, *In fashion*, (London: George Allen Unwin, 1978), p. 137.
- 28)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Women & Fashion* (London: Quartet Books, 1989), p. 44.
- 29) Elizabeth Wilson, Op. cit., p. 206
- 30) Prudence Glynn, Op. cit., p. 138.
- 31)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1994), p. 172.
- 32) Carolin Evans & Minna Thornton, Op. cit., p. 50.
- 33) Ibid., 53-55.
- 34) Jennifer Craik, Op. cit., p. 200.
- 35) Ibid., p. 203.
- 36) J. C. Fl 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30), p. 27. Valerie Steel, *Fashion & Eroticism*(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25에서 재인용.

- 37)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1990), Valerie Steel, Op. cit., p. 25에서 재인용.
- 38) Sigmund Freud,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1918), S. E., 14, 126—130., Valerie Steel, Op. cit., p. 27에서 재인용.
- 39) Joanne Finkelstein, *After a Fashion*(Australia: Melbourne Univ. Press, 1996), p. 48.
- 40) 김덕자 편,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1993), p.72, 전혜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에서 재인용.
- 41) J. C. Fl gel, Op. cit, pp. 213, 86, 115. Valerie Steel, Op. cit., p. 29에서 재인용.
- 42) Valerie Steel, Op. cit, p. 29.
- 43) Carolin Evans Minna Thornton, Op. cit., p. 14.
- 44) Ibid., p. 44.
- 45) Marianne Thesander, *The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Ltd, 1997), p. 219.
- 46) Jennifer Craik, Op. cit., p. 198.
- 47) *The Face*(London; Wagadon Ltd, 1998년 10월호), 1—2.
- 48) J. Baudrillard, Op. cit., 130—134.
- 49) Marilyn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14.
- 50)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2), p. 38.
- 51) Ibid., p. 39.
- 52) Jennifer Craik, Op. cit., p. 179.
- 53) Joanne Finkelstein, Op. cit., p. 277
- 54) Elizabeth Wilson, Op. cit., p. 180.
- 55) 이정민, "19세기 남성복에 나타난 텐디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56) Jennifer Craik, Op. cit., p. 185.
- 57) 손미희 · 임영자,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997년 5월호, p. 263.
- 58) Juliet Ash & Elizabeth Wilson, Op. cit., p. 42.
- 59) Ibid.에서 재인용.
- 60) Ibid., p. 47.
- 61) Valerie Steel, Op. cit. p. 244.
- 62) Ibid., p. 244.
- 63) Ibid., p. 107.
- 64) Croline Evans & Minna Thornton, Op. cit., p. 62.
- 65) Eduard Fuchs, *Illustr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1909,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IV(서울: 까치, 1986), p. 5.
- 66) Marilyn Horn Lois M. Gurel, Op. cit., p. 189.
- 67) Anne Hollander, Op. cit, p. 7.
- 68) Elizabeth wilson, Op. cit., p. 33.
- 69) Anne Hollander, Op. cit, p. 10.
- 70) Colin McDowell, *Dressed to Kill* (London: Hutchinson), p. 17.